

칼럼

김수중 뉴스1 코론



### 샌더스냐, 블룸버그냐

아시아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난리인데, 미국에선 대통령 예비선거전으로 정신없다. 올해 11월 3일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워싱턴의 백악관 주인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약당을 늘어놓으며 플로리다 골프장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된다. 예비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거치는 과정이지만, 여당인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인과 전 세계인의 관심은 누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해서 트럼프와 승부를 펼치느냐에 쏠려 있다.

“뉴햄프셔가 가는 데로 미국이 간다.” 미국 대통령 예비 선거전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정치 속담이다. 만약 이 속담이 믿을 만하다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사람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될 것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22일 열린 네바다코커스(당원대회)에서 47.5%의 득표율로 20.8%를 얻은 조 바이든 전 민주당 부통령을 일방적으로 제압하고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열린 뉴햄프셔 대선에서 샌더스는 26%의 득표율을 얻어 24.4%를 얻은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가까스로 이긴 바 있다.

샌더스가 4년 전 애리조나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깨지면서 예비선거의 승기를 잡지 못했던 악몽을 생각할 때, 그는 이번 네바다의 승리를 큰 계기로 받아들일 것이다. 3월 3일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17개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 소위 슈퍼화요일이며, 여기서 이기면 대통령후보 지명의 지름길로 접어들게 된다. 선거자금도 잘 건질 것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제 장애물이 없는 길을 질주할 것인가. 쉬 그리 될 것 같지는 않다. 마이크 블룸버그라는 장애물이 앞에 있다.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슈퍼화요일에 초점을 맞추고 막대한 선거자금을 쓰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뒤늦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4개 주 예비선거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슈퍼화요일로 직행하고 있다.

그가 참여하지 않았던 뉴햄프셔 예비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도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중순 NBC·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 샌더스가 21%, 블룸버그는 4%였다. 뉴햄

프셔 직후인 2월 중순 NPR·PBS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는 19%를 얻어 민주당 TV토론의 자격을 획득했다. 샌더스의 지지도는 31%였다. 블룸버그의 본격적 등판이 공인됐음을 뜻했다. 블룸버그 진영을 흥분시킨 것은 2월 중순 뉴햄프셔 예비선거 후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세인트 피트 여론조사 결과다. 블룸버그의 지지도는 27.3%로 샌더스의 10.3%를 크게 압도했다.

지난 19일의 TV후보 토론은 블룸버그에게 악재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블룸버그 공격에 집중했다. 뉴욕시장 재직 시 불심검문과 여성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버니 샌더스는 “미국 선거를 돈으로 사려 한다”고 비난했다. TV토론에서 블룸버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3% 정도 지지율 하락을 보였다. 그럼에도 블룸버그에 대한 관심은 높다. 블룸버그는 공화당원으로 뉴욕시장을 3연임했다. 민주당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이다. 그런 블룸버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왜 지지도가 높은 것인가. 일단 돈의 힘이 크다. 그는 3개월 동안 4억6000만 달러를 썼다. 한국 돈으로 약

55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그는 선거 모금운동을 하지 않고 그의 개인 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블룸버그의 지지를 상승 요인은 돈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트럼프를 누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전통적 의미의 민주당 후보가 없다는 데 있다. 네바다 코커스에서 크게 부상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스스로 사회주의 자임을 천명한 무소속이었다가 2016년 예비선거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발을 담갔다. 여성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급진적 반(反)웰스트리트 이미지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강세가 꺾여버렸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등으로 올라섰던 동성연애자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 시장도 한계를 드러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분류에 부합하는 후보이지만 파괴력이 모자라 다.

블룸버그는 이런 사정을 간파하고 뒤늦게 민주당 경선에 뛰어 들었다. 그는 민주당의 가치인 경제 불평등 해소를 정책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트럼프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온건파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세를 흡수하고 싶어 하고 이 전략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 경선후보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샌더스를 “잘 한다”고 치켜세우는 반면, 블룸버그를 깎아내렸다. 사회주의자로 몰아붙여 승기를 잡기에 편해 보이는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 社 說

### 여야 영수회담에 거는 기대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천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그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만난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처음 회동하는 것이나 의제 형식을 놓고 별다른 잡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추경에 대한 협조 방침을 밝힌 것이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한 것은 고무적이다. 여야가 정교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초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가적 위기에 정치가 개입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그런데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 극복보다는 정치적 이해를 염두에 둔 듯한 언행이 심심찮게 나와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4월 총선이 코앞에 닥친만큼 상대를 공격하는데 질주의 기회라 여길 수 있겠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권 심판론’이나 ‘야당 심판론’을 넘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향후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다. 중대 국면에 진입한 만큼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이들의 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선 향후 대책에 초점을 맞춘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산불이 마을 앞까지 들이닥쳤는데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화재 원인에 대해 다툼을 벌인다면 마을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불을 끄고 난 뒤 문제점을 따져 그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과잉대응이 늦장대응보다 낫다’

우수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화되는 때를 뜻하는데, 이는 긴 겨울이 가고 본격적으로 봄을 맞을 체계를 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즈음해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이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얼었던 지면이 녹아 지반이

상에 의한 전도나 붕괴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관심과 주의가 기울려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해빙기 안전사고는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 건설공사장 등에서 흠막이벽 붕괴 등으로 많은 사

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공사장 부근에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에서는 절개지, 암반 등에서 절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지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등에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이준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언론진흥재단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